

저자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지적자유 연구동향 분석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Intellectual Freedom Using Author Keyword Network Analysis

우명진 (Myung-jin Woo)*

정연경 (Yeon-Kyoung Chung)**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지적자유 연구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저자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KCI에서 수집한 745편의 논문 중 제목과 초록 등을 검토하여 지적자유 주제와 직접 관련된 67편을 선별하였고 219개의 정제 키워드를 정리하였다. 키워드 빈도 및 공출현 행렬을 산출한 뒤 피어슨 상관계수로 정규화하였으며, NodeXL을 활용해 네트워크를 시각화하고 군집을 생성하였다. 분석 결과 '검열'과 '금서'가 중심에 위치하며 장서개발, 자료선정, 출판사, 일제강점기 등과 높은 연결성을 보였다. 군집은 장서정책 기반 검열, 일제 검열제도, 공공도서관 독서운동, 정보취약계층 포용서비스, 프라이버시, 온라인 표현 규제·필터링의 6개로 구분되었고,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지적자유 논의가 교차·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내 지적자유 담론이 전통적 장서·검열 문제에서 이용자 권리와 온라인 정보환경의 규제로까지 범위를 넓혀왔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used author-keyword network analysis to examine the structural development of intellectual freedom research in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e retrieved 745 Korea Citation Index (KCI)-indexed papers and, after screening titles and abstracts, selected 67 papers directly addressing intellectual freedom. Author keywords were standardized by resolving variant spellings and synonyms and removing irrelevant terms, yielding 219 refined keywords. Keyword frequencies and a co-occurrence matrix were computed and normali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network was visualized and clustered with NodeXL. The results identify "censorship" and "banned books" as central keywords, strongly linked to collection development, material selection, publishers, and studie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ix thematic clusters emerged: (1) collection-policy-based censorship, (2) the Japanese colonial censorship system, (3) public library reading campaigns, (4) inclusive services for information-vulnerable groups, (5) privacy, and (6) regulation and filtering of online expression. Findings indicate a growing intersection between intellectual freedom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suggesting that Korean scholarship has broadened from traditional collection and censorship debates to encompass user rights and governance of online information.

키워드: 지적자유, 검열, 금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자료선정, 프라이버시
intellectual freedom, censorship, banned books, keyword network analysis, material selection, privacy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 서울특별시교육청도서관·평생 학습관 사서(mjinwoo@sen.go.kr)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kchung@ewha.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6년 2월 19일 ■ 최초심사일자: 2026년 3월 3일 ■ 게재확정일자: 2026년 3월 7일

■ 정보관리학회지, 43(1), 113-136, 2026. <http://dx.doi.org/10.3743/KOSIM.2026.43.1.113>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적자유(Intellectual Freedom)’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읽고, 정보를 찾고, 말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각국의 헌법 체계 내에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이하 ALA), 2008).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 1조를 통해 종교·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Haynes & Chaltain, 2003). 각국 헌법에서 명문화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라는 상위 개념으로 수렴되며,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이하 IFLA), 1999). 그중 도서관은 민주사회의 기반이 되는 공공지식 인프라로서 지적자유라는 철학적 토대 위에서 시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이다.

최근 도서관 현장에서는 지적자유 원칙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부 사회단체와 정치세력이 성교육·성평등 도서나 역사적 논쟁 도서의 열람제한·폐기를 요구하면서 도서관 장서에 대한 외압과 검열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교육·성평등 도서의 열람·대출 제한은 아동의 알 권리 침해라는 결정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자료제한을 위한 행위로 판단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 2025), 한국도서관협회 역시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도서관의 자율적 판단권과 사서의 전문직 윤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공식화하였다(한

국도서관협회 도서관지적자유위원회, 2024).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동향과 해법』 보고서를 통해 『도서관법』에 지적자유 보장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제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5).

지적자유는 더 이상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규범이 아니며 도서관의 존립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실천 지표이다. 2010년대 이후 ALA(미국도서관협회),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CILIP(영국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of Information Professionals) 등 주요 도서관 단체는 지적자유를 표현의 자유가 확장된 형태로 규정하고, 디지털 검열·알고리즘 편향·정보통제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왔다(ALA, 2021; CILIP, 2018; IFLA, 2019). 이에 비해 국내 도서관계를 비롯한 문헌정보학 영역에서는 관련 규정이나 조직, 연구가 아직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저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지적자유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적자유 논의가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 학문적·실천적 공백을 밝힘으로써, 향후 지적자유 연구와 도서관 정책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질문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도출하였다.

- 연구질문 1: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국내 지

적자유 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질문 2: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국내 지적자유 연구의 키워드간 관련성은 어떠한가?
- 연구질문 3: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국내 지적자유 연구 주제의 군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도서관 맥락에서의 지적자유 연구들을 정리하고 국내외 지적자유 개념이 단일 단어 외에 다양한 인접 개념들과 관련돼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저자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데이터 수집, 키워드 선정, 네트워크 구성, 네트워크 분석까지 총 네 단계를 거쳤다.

첫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지적자유 관련 주제로 한 연구의 저자키워드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논문검색’ 기능을 활용하였다. 둘째, 단어 정제 작업과 빈도수를 기준으로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키워드 교정 작업, 통제작업, 제거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재윤(2012)의 SEMI.exe 프로그램으로 키워드 출현 빈도수를 산출하여 출현 빈도가 높은순으로 키워드를 정렬하였다. 셋째, 이재윤(2013a; 2013b)의 COOC version 0.4 및 Wnet version 0.4.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키워드 동시 출현 빈도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렬을 작성한 후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행렬을 정규화하였으며 네트워크 시각화는 Microsoft의 NodeXL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넷째, 기초 통계를 제시하고 키워드 빈도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1.3 선행연구

문헌정보학 영역에서 지적자유는 추상적 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서관 제도와 정책 문서(권리선언·대응체계) 속에서 규범화되었으며, 자료선정·장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열과 긴장, 그리고 사서의 전문직 윤리선언과 함께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김신영, 2024; 배경재, 2022; 이명희, 2004; 장덕현, 2011; 정현태, 2000b). 따라서 도서관 맥락의 지적자유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그중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를 함께 검토하였다. 이는 연구 범위를 도서관 영역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문헌정보학 영역에서 지적자유가 주로 도서관을 매개로 축적되어 온 학문적 역사를 반영한 것이다.

우선, 국내에서는 정현태(2000a; 2000b)가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지적자유 쟁점을 체계화하였다. 이명희(2001)는 표현의 자유의 철학적 근거와 미국 판례들을 연결하여 도서관 현장에서의 해석을 논의하였다. 이후, 이명희(2004)는 한국과 미국의 금서 역사, ALA의 전담조직과 정책 문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비교하였다. 장덕현(2011)은 장서개발 정책에 지적자유 원칙과 이의제기 절차를 명문화하자고 제안하며 정책 설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김선호(2016)는 지적자유를 실무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확장하여 사서의 권리와 사회적 옹호를 강조하였다. 김신영(2024)은 최근 3년간 지적자유 침해 양상을 분석하여 대응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송현경(2025)은 신문 빅데이터 기반 연구를 통해 지적자유 쟁점이 이념에서 선정성·작성자

이슈·디지털 통제로 이동했음을 확인하였다.

국외에서는 지적자유가 구체적 갈등과 협상 속에서 제도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Latham(2009)은 1930년대 시카고공공도서관 사례를 통해 지적자유 원칙이 현장의 판단과 지역사회 논쟁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Asato(2014)는 1946~2007년 ALA의 역사를 통해 전통적으로 이용자 권리 중심이었던 지적자유가 사서의 표현의 자유에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Oltmann(2016)은 도서관 관리선언(LBR)에 대한 기관장의 해석이 정치·문화·이용자 구성에 따라 실제 운영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Kozak(2019)이 리틀프라이브리리의 사례를 통해 운영자 개인의 신념에 따라 미시적 검열이 나타나는 등, 공공제도 밖에서도 지적자유가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MacDonald(2024)는 검열 이슈를 넘어서 지적자유를 다양한 자유 개념의 틀에서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Knox(2024)는 관점 중립과 가치 중립을 혼동하지 말고, 지적자유를 가치와 합헌성을 동시에 담아낸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ong(2025)은 Web of Science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저자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서구적 맥락에서 지적자유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지적자유 논의가 기술 통제, 제도별 맥락, 검열과 대응, 이론·제도화라는 네 가지 축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필터링·프라이버시·AI가 지적자유 주제의 전면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국외에서는 저자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서구적 맥락에서 지적자유 연구동향을 정리한 반면, 국내에서는 지적자유 연구

동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다. 개별 도서관이나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신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논쟁 양상을 살펴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KCI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저자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지적자유 연구의 주제 구조와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한국의 연구동향을 국제적 논의와 비교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지적자유와 네트워크 분석

2.1 지적자유 개념

지적자유는 근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철학적 전통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근간에는 17세기 존 밀턴의 <Areopagitica>와 19세기 존 스튜어트 밀의 <On Liberty>가 있다. 밀턴은 당시 영국 의회의 인쇄검열제도를 비판하며 진리는 허위와의 투쟁을 통해 더욱 강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검열을 인간 이성의 모독으로 규정하며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다고 보았다(Milton, 1959). 밀은 해악의 원리(harm principle)를 통해 타인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상·표현은 국가나 사회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진리를 절대적 권위가 아닌 사상 간의 경쟁을 통한 검증 과정으로 보았는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적자유 철학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Mill, 1989). 이 전통은 계몽주의 및 자유주의 철학과 결합하여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 조항으로 제도화되었고, 21세기에 와서는

도서관의 지적자유 실천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장덕현, 2011; 정현태, 2000b).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는 1930년대 후반 미국에서 검열 논란이 고조되던 시기 ALA가 1939년 〈Library Bill of Rights〉를 채택하면서 도서관 서비스의 기본 원칙으로 성문화되었다(ALA, 2006a). 〈Library Bill of Rights〉는 도서관이 모든 견해를 포괄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당파적이거나 교리적 반대를 이유로 자료를 금지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ALA, 2006a). 이후 ALA는 1953년 〈The Freedom to Read Statement〉 등을 채택·개정하며 지적자유 원칙을 구체화했고(ALA, 2006b), 〈ALA Code of Ethics〉는 1939년 채택된 후 1981·1995·2008·2021년 개정을 거치며 지적자유와 이용자 권리를 전문직 윤리의 핵심으로 명시해 왔다(ALA, 2017).

이 원칙은 국제적으로도 확산되었는데, IFLA는 1999년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을 채택하여 도서관은 사상과 정보, 창작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어떠한 형태의 검열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IFLA, 1999). 일본도서관협회는 1979년 개정된 〈図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에서 알 자유(知る自由)를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동일한 원리로 규정하였다(Jap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JLA), 1979). 한국은 1997년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 윤리선언」에서 도서관인은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고 명시하며 지적자유 개념을 도입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2019). 이후 한국도서관협회는 2024년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사서의 판단기준과 이용자 권

리를 구체화하였고(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지적자유위원회, 2024), 국가도서관위원회는 2025년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동향과 해법」 보고서를 통해 「도서관법」 내 지적자유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5).

2.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은 데이터를 점(node)과 연결선(link)으로 표현하여 관계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다(김용학, 2011). 사회학을 비롯해 행정학, 정보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시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김선희, 윤재희, 2021). 그중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에서 키워드 간 동시출현(co-occurrence) 빈도를 계산하여 관계 구조를 시각화하는 기법이다(이수상, 2014). 키워드를 노드로, 관계를 링크로 설정하며 주요 키워드의 빈도와 연결 패턴을 통해 연구 주제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안명숙, 오익근, 201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내용분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최영출, 박수정, 2011). 내용분석이 연구자의 범주 설정에 따라 주관성이 개입되는 반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논문에 부여된 실제 키워드 자체를 데이터로 사용하여 정보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중심성 등 객관적 지표로 주제 간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김영화, 김하나, 2023; 조남욱, 조규락, 2017). 즉,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빈도와 연결성에 기반해 연구 주제의 핵심 구조와 관계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학문 전반의 연구 흐름과 지식 구조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데 유용하다(한은

형,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지적자유 주제와 현황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데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 네트워크 분석 과정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논문의 저자키워드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지적자유 관련 주제로 한 국내 논문에서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이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KCI의 ‘논문검색’을 활용하였다. 주제 분류는 별도로 ‘복합학’ 중 ‘문헌정보학’으로 선택하여 1990~2025년까지 발표된 지적자유 관련 연구를 수집하였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지적자유는 ‘지적자유’라는 단일 표제어로만 논의되기보다, 검열·금서·열람/자료 제한·폐기·청소년보호 등 구체적인 침해 양상과 결합되어 있다. 송현경(2025)은 신문 데이터 수집 시 ‘도서관 지적자유’ 외에도 ‘도서관 검열’, ‘도서관 금서’, ‘도서관 열람제한/자료제한’, ‘도서관 청소년보호’, ‘도서관 인터넷검열/온라인검열’ 등 선행연구 기반의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검색어로 활용하였다. 또한 국외 연구에서도 지적자유 관련 검색 키워드는 ALA에서 공식적으로 정의해 온 핵심 용어에 근거하여 “Intellectual Freedom”뿐 아니라 Censorship, “Freedom to Read”, “Freedom of Expression”, “Library Bill of Rights”, “Banned

Books”, “Internet Filtering”,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CIPA)” 등으로 구성된다(Song, 2025). 이에 본 연구는 ‘고급검색’에서 한·영 용어를 포함하여 <표 1>과 같은 검색식을 사용하였다.

검색된 논문의 서지정보를 추출한 뒤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745편의 논문 중 저자키워드가 있는 연구는 689편이었다. 본 연구는 지적자유를 표현의 자유·독서의 자유·정보접근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조작적 정의하고(장덕현, 2011), 검열·접근제한(금서·열람제한·폐기·필터링 등)과 같은 직접적 통제 이슈와 지적자유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프라이버시, 비차별, 윤리/정책 체계)을 포함하는 범주를 설정하였다(송현경, 2025). 검색 단계에서는 문헌을 누락시키지 않기 위해 확장된 검색식을 사용하였으나, 최종 분석대상은 제목·저자키워드·초록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적자유 핵심 논점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하였다.

이 과정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도서관 프로그램 성과·평가·교육·운영 중심의 독서문화진흥 활성화 연구, 단순 이용자 요구·정보행태·설문조사·공간구성 관련 연구는 제외하였다. 또한, 정보취약계층 및 어린이·청소년 대상 연구, 장서정책·폐기에 대한 연구, 필터링·등급 시스템 기술에 대한 연구라 하더라도 지적자유 맥락을 담지 않은 논문은 모두 제외하였다. 예시로 ‘개인정보보호’ 등 인접 키워드가 포함되더라도 단순 제도 소개·기술적 보안 논의에 그치는 연구는 제외했고, 이용자의 탐색·열람·검색 등 지적 활동이 감

〈표 1〉 검색식(검색 키워드 중심)

검색 키워드(한국어)	검색 키워드(영어/약어)
지적자유 지적 자유 도서관 지적자유 도서관 지적 자유	intellectual freedom
검열 도서 검열	ensorship online censorship
독서의 자유 표현의 자유	freedom to read freedom of expression
도서관 권리선언 도서관 권리 선언	Library Bill of Rights
금서 금서 지정 금서 주간 금서읽기주간	banned book banned books Banned Books Week
인터넷 필터링 인터넷 차단 차단 소프트웨어 필터링 소프트웨어	internet filtering filtering filtering software
아동인터넷보호법 아동 인터넷 보호법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CIPA
열람제한 열람 제한 자료제한 자료 제한	access restriction
도서 폐기 도서폐기 폐기	removal
유해 유해 도서 유해도서 청소년 유해 청소년 유해 도서 청소년보호 청소년 보호	harmful materials children youth minors
내용 등급제 인터넷 내용 등급제	-

시·추적·통제될 때 발생하는 정보권리의 긴장을 중심으로 다룬 경우라면 포함하였다. 그 결과 최종 67편이 지적자유 관련 연구로 선정되었다.

3.2 데이터 전처리

KCI에서 수집한 총 67편의 논문에서 키워드 동시출현 분석에 필요한 저자키워드를 추출하

였다. Notep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키워드를 취합한 목록을 만들었다. 이후, 네트워크 분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정작업, 통제작업, 제거작업을 진행하였다. 전처리 과정에서 '지적자유'를 제거한 것은 핵심 키워드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결 관계가 생겨 네트워크상에서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왜곡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이수상, 2012). <표 2>는 본 연구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전처리 작업한 일부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19개 키워드를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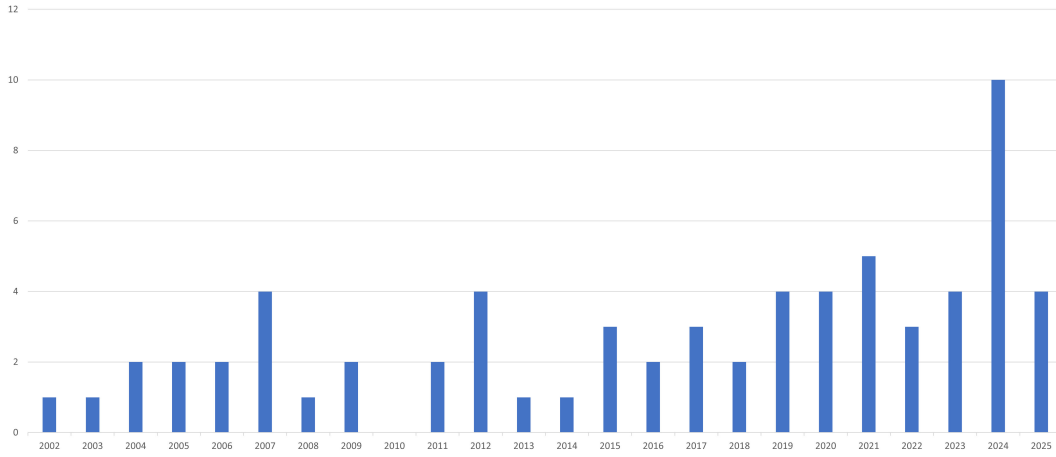
4. 네트워크 분석 결과

4.1 기초 통계

<그림 1>은 1990~2025년까지 연도별 논문 건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KCI에 등재된 연구로는 2002년부터 등장했으며 2024년이 10편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 가장 많았다. 문헌정보학 내 다른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6년간의 연구가 30편에 달해 전체의 약 44.8%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 지적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 생산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표 2> 저자 키워드 전처리 예시

구분	사례	전처리 결과
유의어 처리	검열본, 검열본의현황	검열본
	검열의실태, 검열의특징, 자기검열, 검열양상및실태, 검열, censorship	검열
	금서, Banned books	금서
	상업적출판업자, 한성도서주식회사, 한의학전문출판사, 싸이허브, 학술출판사	출판사
	식민지, 일제강점기, 1920~30년대	일제강점기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in Korea	공공도서관
	이용자서비스, 도서관서비스	도서관서비스
	개인정보, 민감정보, 비식별개인정보	개인정보
	표현의자유, Freedom of expression	표현의자유
	원고본, 육필원고	원고본
	대학도서관, 신학대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자료선택, 자료선정	자료선정
	'한책한도시' 독서운동, 지역사회독서운동, 독서운동, 아동독서운동	독서운동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
	만화책, 만화, 만화매체	만화
	소외계층, 지식정보취약계층	정보취약계층
어린이도서관, 아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도서관인윤리선언, code of ethics, librarian ethics, codes of ethics, 윤리	도서관윤리	
용어 분리	일제강점기 출판문화사	일제강점기, 출판문화사
	고소설의 검열과 납본	고소설, 검열, 납본
불용어 처리	핵심 키워드: 지적자유	삭제



〈그림 1〉 연도별 지적자유 관련 국내 연구 논문 건수

보여준다. 특히 2023~2024년 사이 여성가족부에서 선정·보급했던 ‘나다움어린이책’을 비롯한 성교육·성평등 도서 등을 둘러싼 열람 제한·폐기 요구가 공론화되면서 지적자유 논의를 촉발했고(김신영, 2024), 2024년 8월에 발표된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이 큰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지적자유위원회, 2024).

다음으로, 〈표 3〉은 학술지별 등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지적자유 관련 국내 연구 총 67편은 12종 학술지에 등재되었다.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5편(22.39%)이며, 다음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4편(20.90%)이다. 상위 2개 학술지에 29편(43.29%)이 집중되고 상위 5개 학술지에 47편(70.16%)이 누적되어 핵심 학술지

〈표 3〉 학술지별 지적자유 관련 국내 연구 등재 현황

학술지	논문 수(편)	비율(%)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5	22.39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4	20.90
서지학연구	7	10.45
한국비블리아학회지	6	8.96
정보관리학회지	5	7.46
근대서지	4	5.97
융합정보논문지	4	5.97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3	4.48
기록학연구	3	4.4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	4.48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2	2.99
Science Editing	1	1.49

중심으로 축적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다만 동일한 문헌정보학 분야 안에서도 서지학·근대서지 계열(『서지학연구』, 『근대서지』)에서 11편(16.42%)이, 기록관리·아카이브 계열(『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에서 8편(11.94%)이 게재되어 지적자유 연구가 역사적 검열·서지 자료 및 정보관리·기록 처분 등의 축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표 4>는 연구자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이다. 67편에 대한 논문 생산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공저 및 동일 연구자의 중복을 포함한 총 95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교수가 59명(62.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원 10명(10.53%), 강사 8명(8.42%)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집단은 박사과정 4명(4.21%), 석사과정 4명(4.21%), 학사과정 3명(3.16%)으로 총 11명(11.58%)을 차지하였다. 반면 현장 직군(사서·사서교사·아키비스트·도서관 인턴·타 직종 실무자)은 총 7명(7.37%)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

통해 본 분석 대상에서 지적자유 관련 연구가 학계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경향이 강하며, 현장 실무자의 연구 기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2 키워드 빈도

키워드는 논문의 주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 단어이다. 하지만 모든 키워드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생성하기보다 키워드 중에서도 자질(features)이 높은 단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의 자질은 주로 단어의 출현빈도로 판단한다(이수상, 2014). <표 5>는 이재윤(2012)의 SEMI.ex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키워드 출현 빈도가 3회 이상이면 빈도 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한 결과이다.

키워드 빈도가 가장 뚜렷하게 높은 키워드는 ‘검열’(11회)로, 이는 지적자유 연구에서 검열 이슈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반복해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서’(6회) 또한 지적자유 논의가 여전히 도서 퇴출 등의 직접적인 제

<표 4> 지적자유 관련 연구자 직업군 분석 결과

직업군	연구자 수(명)	비율(%)
교수	59	62.11
연구원	10	10.53
강사	8	8.42
박사과정 학생	4	4.21
석사과정 학생	4	4.21
사서	3	3.16
학사과정 학생	3	3.16
도서관 인턴	1	1.05
사서교사	1	1.05
아키비스트	1	1.05
타 직종 실무자	1	1.05

〈표 5〉 지적자유 관련 저자 키워드의 빈도분석 결과(빈도수 3회 이상)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검열	11	대학도서관	3
금서	6	납본	3
출판사	5	연구동향	3
장서개발	5	자료선정	3
일제강점기	5	장서개발정책	3
공공도서관	4	독서운동	3
검열본	4	필터링	3
도서관서비스	4	개인정보보호	3
개인정보	4	만화	3
표현의자유	4	정보취약계층	3
조선총독부	3	어린이도서관	3
원고본	3	도서관윤리	3

한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출현빈도가 5회인 키워드는 3개로, ‘출판사’, ‘장서개발’, ‘일제강점기’가 해당된다. 이는 지적자유 연구가 출판 및 유통, 장서 형성과 접근의 기반이 되는 장서개발,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맥락을 주요 분석 틀로 삼아 왔음을 의미한다. 특히 ‘일제강점기’가 상위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국내 지적자유 연구에서 식민지기 검열 체계와 자료 통제를 다루는 역사적·서지학적 접근이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현빈도가 4회인 키워드는 5개로, ‘공공도서관’, ‘검열본’, ‘도서관서비스’, ‘개인정보’, ‘표현의자유’가 해당된다. 이는 지적자유 논의가 단순히 ‘검열’과 ‘금서’에 그치지 않고, 도서관 현장의 적용(‘공공도서관’, ‘도서관서비스’), 검열의 물리적 대상(‘검열본’),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개인정보’, ‘표현의자유’)로 확장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준다.

〈표 6〉은 이재윤(2013a; 2013b)의 COOC version 0.4 및 Wnet version 0.4.1과 NodeXL을 활용하여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 쌍의 동시

출현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높은 동시출현 빈도는 ‘검열본-원고본’(0.95394)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적자유 연구 중에서도 특히 검열 자료를 다루는 연구가 원고 자료(원문)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검열’을 단순히 정책·규범의 차원에서 논의하기보다는 검열의 정확한 자료 형태와 함께 분석하는 연구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연결은 ‘장서개발-자료선정’(0.83932)이며, 이후에도 ‘검열-자료선정’(0.79125), ‘금서-자료선정’(0.77491)이 상위에 위치한다. 이는 지적자유 논의가 검열/금서와 같은 직접적인 제한뿐 아니라, 도서관 실무에서 접근과 배제를 가르는 자료선정·장서개발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0.79576)와 ‘표현의자유-필터링’(0.79576)이 동일한 수준의 동시출현 빈도를 보이는데, 이는 최근 국외뿐 아니라(Song, 2025) 국내 지적자유 논의에서도 프라이버시와 필터링 이슈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지적자유 관련 저자 키워드 간의 동시출현 빈도분석 결과(상위 15개)

연번	키워드 1	키워드 2	동시출현 빈도(Weight)
1	검열본	원고본	0.95394
2	장서개발	자료선정	0.83932
3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0.79576
4	표현의자유	필터링	0.79576
5	검열	자료선정	0.79125
6	금서	자료선정	0.77491
7	출판사	원고본	0.77336
8	장서개발정책	장서개발	0.759
9	일제강점기	원고본	0.75119
10	조선총독부	일제강점기	0.73734
11	납본	검열	0.7226
12	독서운동	어린이도서관	0.61905
13	연구동향	정보취약계층	0.59833
14	납본	조선총독부	0.55658
15	도서관서비스	연구동향	0.52658

4.3 키워드 네트워크

최근접이웃중심성은 다른 노드에 의해 최근접 이웃으로 꼽히는 정도를 말한다(이재윤, 2013c). 전체 노드 수가 N개일 때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노드로부터 최근접이웃으로 꼽힐 경우에 N-1로 최댓값이 된다. 따라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할 때에는 최근접이웃중심성 값을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댓값인 N-1로 나누어서 상대적 최근접이웃중심성으로 사용한다(이재윤, 2013c). 〈표 7〉은 이재윤(2013a; 2013b)의 COOC version 0.4 및 Wnet version 0.4.1 과 NodeXL을 활용하여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들의 최근접이웃중심성을 나타낸 것이며, 이를 토대로 〈그림 2〉와 같이 표현하였다.

분석 결과 '원고본(0.13043)'이 최상위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표본에서 지적자유 논의가 정책·규범 수준의 검열 담론에만 한정되지

않고, 검열의 자료(검열본-원고본)를 추적·비교하는 역사적·서지학적 접근을 하나의 축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시출현 분석에서 '검열본-원고본'이 최상위 연결강도(0.95394)로 나타난 결과와도 연결된다. 키워드 빈도 분석에서 '출판사', '일제강점기'가 상위권에 위치한 점도 해당 연구축이 출판·유통 및 식민지기 검열 체계 맥락과 함께 네트워크 구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한 최근접이웃중심성 수치인 '자료선정(0.13043)'은 도서관 실무·정책에서 무엇을 포함하고 배제할 것인가, 선정이 검열과 어떻게 맞물리는가 등과 같은 '선정'의 문제를 핵심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순위인 '어린이도서관'과 '독서운동'(0.08696)은 지적자유를 금지/검열의 반대편 아니라 읽을 권리, 특히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와 읽기 환경으로 이해하는 연구 흐름이 준

재함을 보여준다. 동일한 수치인 ‘정보취약계층’(0.08696)은 지적자유 연구가 정보접근권·포용·격차 완화와 결합되는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서개발’(0.08696)은 ‘자료선정’과 함께 도서관 장서 정책/관리 결정이 이용자 접근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지적자유 논의와 결합할 여지가 큰 영역이다.

다음으로, 삼각매개중심성은 가중 네트워크에서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를 매개시켜주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이다(이재윤, 2013c). 전체 노드 수가 N개인 네트워크에서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노드들 사이의 관계를 모두 매개해줄 수 있을 때 최댓값 $(N-1) \times (N-2) / 2$ 가 된다. 따라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할 때에는 삼각매개중심성 값을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댓값으로 나누어서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으로 사용한다(이재윤, 2013c). <표 8>은 이재윤(2013a: 2013b)의 COOC version 0.4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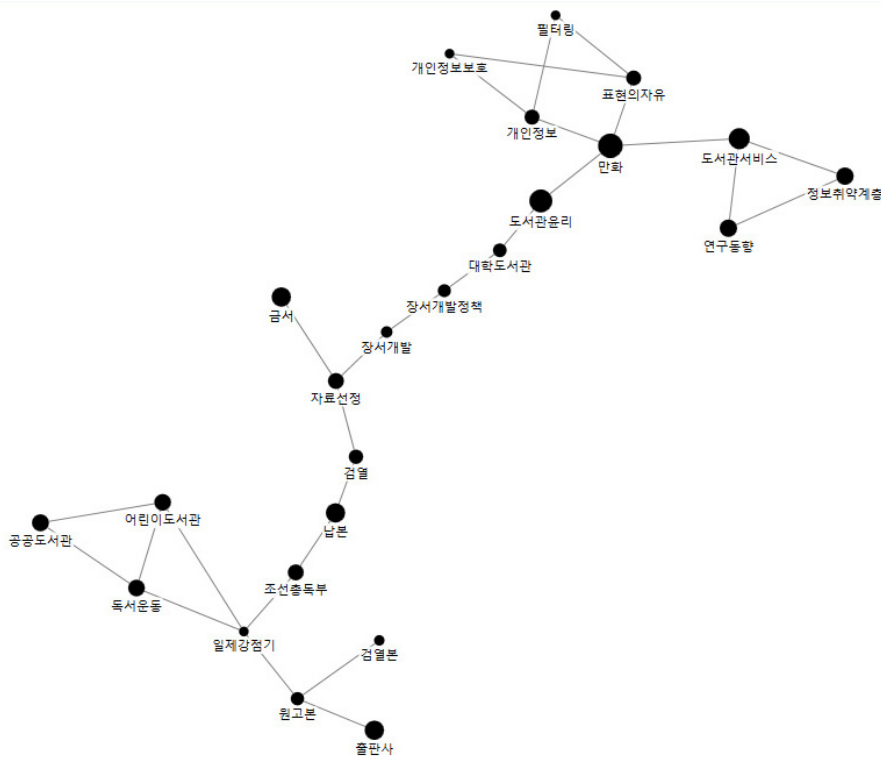
Wnet version 0.4.1과 NodeXL을 활용하여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들의 삼각매개중심성을 나타낸 것이며, 이를 토대로 <그림 3>과 같이 표현하였다.

분석 결과 ‘만화’(0.71542)가 최상위로 나타난 것은 만화가 지적자유 연구에서 하나의 하위 주제를 많이 다루는 키워드라기보다, 검열·금서·자료선정 등과 가까이 위치하면서도 다른 주제들과의 출현을 통해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 만화가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등 청소년유해성/규제 논의 대상이 되기 쉬운 매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송현경, 2025), 만화도 도서관의 자료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검열 사례로도 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순위인 ‘도서관윤리’(0.62846)와 ‘도서관서비스’(0.52964) 또한 높은 매개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지적자유 연구가 규범·가치 담

<표 8> 지적자유 관련 저자 키워드의 삼각매개중심성 값(상위 15개)

연번	키워드	삼각매개중심성(rTBC)
1	만화	0.71542
2	도서관윤리	0.62846
3	도서관서비스	0.52964
4	금서	0.45059
5	출판사	0.45059
6	납본	0.44664
7	연구동향	0.36364
8	정보취약계층	0.36364
9	공공도서관	0.34783
10	독서운동	0.33597
11	어린이도서관	0.33597
12	자료선정	0.3083
13	조선총독부	0.3083
14	개인정보	0.27273
15	표현의자유	0.27273



〈그림 3〉 지적자유 관련 저자 키워드의 삼각매개중심성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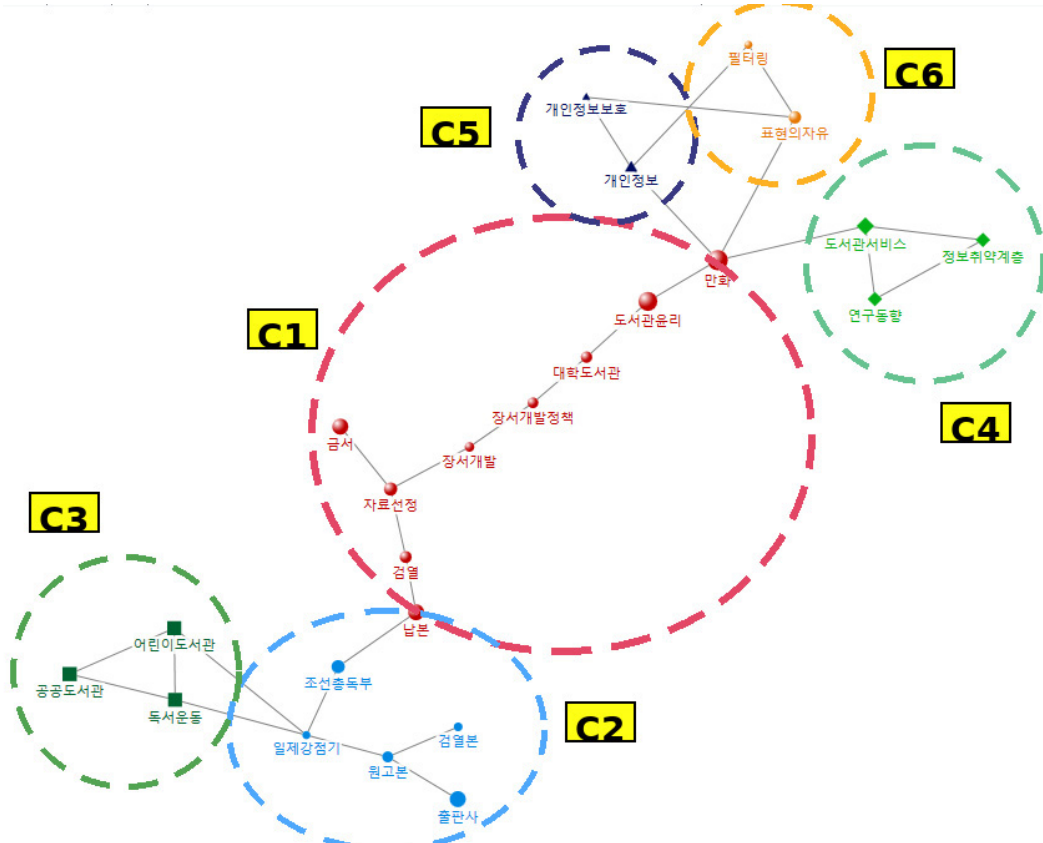
론과 서비스 실천 담론을 중심으로 다른 주제들을 묶어내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특히 이 지점에서 지적자유가 단순히 검열 반대가 아니라 도서관 전문직 윤리 및 서비스 제공의 정당성·원리와 결합해 논의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어서 '금서'와 '출판사'(0.45059), 그리고 '납본'(0.44664)은 비슷한 매개 수준을 보인다. 이는 지적자유 연구에서 검열/금서 이슈가 출판·유통·납본 문제와 결합하면서 다른 주제군과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적자유 연구의 한 축이 도서관 내부 정책만이 아니라 출판·유통 구조 및 제도적 통제까지 아우르는 방식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동향'과 '정보취약계층'(0.36364), 그리고 '공공도서관'(0.34783), '독서운동'(0.33597), '어린이도서관'(0.33597)도 연속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한다. 이는 지적자유 연구가 정보접근권, 공공도서관 서비스, 아동 독서 영역을 하나의 축으로 형성하면서 다른 논의와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재윤(2013a; 2013b)의 COOC version 0.4 및 Wnet version 0.4.1과 NodeXL을 활용하여 〈그림 4〉와 같이 클러스터링 결과를 표현하였다. 〈표 9〉에는 각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키워드 목록과 클러스터 이름을 정리하였다.



〈그림 4〉 지적자유 관련 저자 키워드의 응집구조 분석 결과

〈표 9〉 지적자유 관련 저자 키워드 클러스터 세부 내용

클러스터 식별 부호	클러스터명	키워드
C1	장서정책 기반 검열 이슈	만화, 도서관윤리, 대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장서개발, 자료선정, 금서, 검열, 납본
C2	일제강점기 검열체계	조선총독부, 일제강점기, 원고본, 검열본, 출판사
C3	공공도서관 기반 독서운동	어린이도서관, 공공도서관, 독서운동
C4	정보취약계층 포용 서비스와 연구동향	도서관서비스, 정보취약계층, 연구동향
C5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C6	온라인 표현규제와 필터링	표현의자유, 필터링

C1은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도서관의 장서 결정과 검열·금서의 이슈를 다루는 군집이다. ‘대학도서관’과 ‘도서관윤리’가 함께

포함된 것은 대학도서관에서 지적자유 침해 사건이 빈번함을 의미한다기보다, 지적자유가 ‘장서개발정책’의 규범적 근거이기에 그 적용 맥

락에서 대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연구가 활용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정은주, 2014). 또한 지적자유 담론은 '자료선정'이 전문적 기준에 근거해야 하고, 모든 형태의 검열에 반대해야 한다는 윤리·원칙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는 점에서(송현경, 2025) C1은 검열/금서 이슈가 장서결정의 기준·절차(정책) 및 전문적 윤리와 함께 논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납본'이 포함되어 C2(일제강점기 검열체제)로 연결되는 모습은 지적자유 논의가 출판·유통 및 제도적 통제와도 접점을 가지며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화'는 C1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다른 영역과도 연결되어, 규제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유형이 지적자유 의 여러 하위 쟁점들을 매개하는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C2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맥락에서의 검열과 통제 구조를 다루는 군집이다. '조선총독부', '출판사', '원고본·검열본'이 함께 묶였는데 이는 지적자유 연구가 검열을 제도·기관 수준에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의 형태와 출판·유통과정까지 포함하여 접근해왔음을 보여준다.

C3은 공공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운동/독서문화를 다루는 군집이다. 지적자유를 검열의 반대 개념을 넘어서 어린이·청소년의 읽을 권리·접근 기회로 확장하는 연구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C2(일제강점기 검열체제)와도 연결되는 것은 독서운동·도서관운동 관련 논의가 역사적 맥락과 결합하여 다뤄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C4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포용성과 도서관서비스를 다루는 군집이다. '연구동향'이 포함된 것은 이 축의 연구가 개별 쟁점만이 아

니라 동향 정리로도 나타나며, 다양한 주제군과 결합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C1(장서정책 기반 검열이슈)과 연결되어 지적자유 연구가 검열/선정 논의를 넘어 서비스·포용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C5는 지적자유 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인 프라이버시를 다루는 군집이다. C6(온라인 표현규제와 필터링)와 인접하게 배치되어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자유가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표현·접근권 문제로 확장되어 논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C6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자유 쟁점, 즉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통제의 긴장을 다루는 군집이다. C5(프라이버시) 및 C1(장서정책 기반 검열이슈)과 연결되며 온라인 환경에서 지적자유 논의가 프라이버시 및 도서관의 선정/검열 논의와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수행된 지적자유 관련 연구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KCI에서 수집한 논문을 대상으로 저자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검색 단계에서는 문헌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장된 검색식을 사용하되, 최종 분석대상은 제목·초록·저자키워드 등의 내용을 검토해 지적자유 의 핵심 논점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하였다. 그 결과 67편의 논문과 219개 저자키워드가 최종 선정되었다.

첫째, 문헌정보학 분야의 국내 지적자유 연구는 절대적인 편수가 많지 않으나 최근 연구

생산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특히 KCI 등재 연구는 2002년부터 등장하였고 2024년에 10편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2020년 이후 최근 6년간의 연구가 30편으로 전체의 약 44.8%를 차지하였다. 또한 논문 게재는 소수의 핵심 학술지에 집중되는 경향(상위 5개 학술지 70.16%)이 확인되는 한편, 서지학 및 기록관리·아카이브 계열로도 확장되어 있었다. 연구자 직업군 분석에서는 교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현장 직군(사서·사서교사·아키비스트 등)의 기여는 상대적으로 낮아 국내 지적자유 연구가 학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지적자유 논의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정책·윤리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실무 기반의 연구들이 더욱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저자키워드 간 관련성 분석 결과 국내 지적자유 연구는 (1) 검열·금서 등의 직접적인 통제 이슈, (2) 장서개발·자료선정 등 도서관의 장서 결정, (3) 일제강점기 검열체제 및 검열 자료와 같은 역사적·서지학적 접근을 핵심축으로 가지고 있다. 키워드 빈도에서 ‘검열’과 ‘금서’가 최상위에 위치했고, 동시출현에서도 ‘검열본-원고본’이 가장 강하게 결합했던 것은 지적자유 연구가 정책/규범의 추상적 논의뿐 아니라 검열의 물리적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 ‘표현의자유-필터링’과 같은 결합을 통해 지적자유 논의가 디지털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및 접근 통제 이슈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내 지적자유 연구는 전통적 검열·장서결정 중심의 축을 유지하면서도 프라이버시와 온라인 접근통제라는 현대적 쟁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군집 분석 결과 지적자유 연구 주제는 6개 군집을 이루었다. C1(장서정책 기반 검열 이슈)은 네트워크의 중심부에서 검열·금서와 장서개발/정책·자료선정 등 도서관의 장서 결정을 다루는 핵심 군집이다. C2(일제강점기 검열체제)는 조선총독부·출판사·검열본/원고본 등 키워드를 통해 역사적 통제 구조와 전통적인 자료 분석을 반영한다. C3(공공도서관 기반 독서운동)은 공공도서관·어린이도서관·독서운동을 중심으로 지적자유를 읽을 권리/접근 기회의 맥락으로 포착한다. C4(정보취약계층 포용 서비스와 연구동향)는 정보접근권·포용·서비스의 관점을 통해 지적자유 논의가 서비스 담론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C5(프라이버시)와 C6(온라인 표현규제와 필터링)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표현·접근권 간의 긴장을 담고 있다. 특히 C4·C5·C6이 C1과 연결되는 것은 국내 지적자유 연구가 검열/선정의 전통적인 논의에서 출발하여 서비스·포용, 프라이버시, 디지털 접근 통제라는 쟁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지적자유 관련 국내 논문이 67편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우선, 저자키워드는 연구자마다 부여하는 방식이 달라 같은 주제라도 서로 다른 표현으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주제가 네트워크에서 과소/과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키워드의 동시출현을 근거로 두 주제 간의 인과관계나 중요도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한된 문헌량 속에서도 연구 주제의 큰 흐름과 연결 구조를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

과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지적자유 논의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어떤 쟁점으로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영역이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후속 연구로 도서관 현장의 이의제기·재심 절차, 이용기록 보호, 접근 제한의 기준과 책임 등 경험적 연구와 정책 분석이 축적될 때,

지적자유는 선언적 가치를 넘어선 실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학계와 현장, 도서관 단체와 정책기관이 지적자유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외부 압력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한국 사회에서 도서관이 민주적 공공성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가도서관위원회 (2025).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동향과 해법.

출처: <https://www.clip.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8&boardNo=1868>

국가인권위원회 (2025. 9. 8.). 성교육·성평등 도서 열람·대출 제한은 아동의 알 권리 침해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1474&menuLevel=3&menuNo=91>

김선호 (2016). 진보사서 '조이아 훈'과 그녀의 도서관 자유 사상.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43-68. <https://doi.org/10.16981/kliss.47.4.201612.43>

김선희, 윤재희 (2021). 유아교육 연구에서 네트워크 분석의 연구동향: 2016~2020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6(6), 159-181. <https://doi.org/10.20437/KOAECE26-6-07>

김신영 (2024).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양상과 대처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2), 189-217. <https://doi.org/10.16981/kliss.55.2.202406.189>

김영화, 김하나 (2023). 사회계층과 관련된 진로발달 연구동향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9(6), 75-96. <http://doi.org/10.24159/joec.2023.29.6.75>

김용학 (2011). 사회 연결망 분석(제3판). 서울: 박영사.

배경재 (2022). 지적자유와 도서관 장서검열 문제의 현장 인식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2), 277-294. <http://doi.org/10.4275/KSLIS.2022.56.2.277>

송현경 (2025). 2000년대 이후 신문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 지적자유 사례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1), 547-573. <https://doi.org/10.4275/KSLIS.2025.59.1.547>

안명숙, 오익근 (2015).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기법을 적용한 특급호텔 패키지 이용에 대한 태도 분석: 포털사이트 활용. 관광연구, 30(5), 163-181.

- 이명희 (2001).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저해하는 사례 연구: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2(2), 141-162.
- 이명희 (2004).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노력과 금서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5(1), 193-216.
- 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이수상 (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http://doi.org/10.3743/KOSIM.2014.31.4.049>
- 이재운 (2012). SEMI.exe [컴퓨터 소프트웨어].
- 이재운 (2013a). COOC.exe (version 0.4) [컴퓨터 소프트웨어].
- 이재운 (2013b). Wnet.exe (version 0.4.1) [컴퓨터 소프트웨어].
- 이재운 (2013c). tnet과 WNET의 가중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 비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4), 241-264. <http://doi.org/10.3743/KOSIM.2013.30.4.241>
- 장덕현 (2011). 장서관발에 있어서 지적자유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165-182.
<https://doi.org/10.16981/kliss.42.1.201103.165>
- 정은주 (2014). 대학도서관의 장서관발정책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 신학대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 정현태 (2000a).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1), 243-264.
- 정현태 (2000b).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조남옥, 조규락 (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상담학 연구의 동향과 지식구조 탐색. 상담학연구, 18(2), 1-19. <http://doi.org/10.15703/kjc.18.2.201704.1>
- 최영출, 박수정 (2011).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정보, 45(1), 123-139.
- 한국도서관협회 (2019). 도서관인 윤리선언 (개정 2019. 2. 28.).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지적자유위원회 (2024. 8. 1.).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https://www.kla.kr/api/boards/4/posts/25236/files/4266/download>
- 한은형 (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유아교사의 실천적 지식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6a). Library bill of rights. Available:
<https://www.ala.org/advocacy/intfreedom/librarybill>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6b). The freedom to read statement. Available:
<https://www.ala.org/advocacy/intfreedom/freedomreadstatement>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8). Intellectual freedom. Available:
<https://www.ala.org/advocacy/intfreedom>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7). ALA code of ethics. Available:
<https://www.ala.org/tools/ethics>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1). Intellectual freedom manual (10th 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Asato, N. (2014). Librarians' free speech: The challenge of librarians' own intellectual freedom to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46-2007. *Library Trends*, 63(1), 75-108.
<http://doi.org/10.1353/lib.2014.0025>
-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2018). Ethical framework: Commitment to professional ethics. CILIP. Available:
https://cdn.ymaws.com/www.cilip.org.uk/resource/resmgr/cilip/policy/new_ethical_framework/cilip_s_ethical_framework.pdf
- Haynes, C. C. & Chaltain, S. (2003). *The First Amendment in Schools: A Guide from the First Amendment Center*. Alexandria: ASCD.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1999). IFLA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IFLA Repository.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handle/20.500.14598/1424>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19). IFLA statement on censorship. IFLA Repository.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handle/20.500.14598/2633>
- Japan Library Association (1979). Statement on intellectual freedom in libraries [図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 Available:
https://www.jla.or.jp/library_resources_and_guidelines/statement-on-intellectual-freedom-in-libraries/freedom_english/
- Knox, E. J. M. (2024). Embodiment, endorsement, and policy: Considerations for intellectual freedom in the library. *Information & Culture*, 59(2), 109-124.
<http://doi.org/10.7560/ic59201>
- Kozak, N. I. (2019). "I can't have that in there": Little Free Library stewards and intellectual freedom. *Library Quarterly*, 89(3), 185-202. <https://doi.org/10.1086/703466>
- Latham, J. M. (2009). Wheat and chaff: Carl Roden, Abe Korman, and the definitions of intellectual freedom in the Chicago Public Library. *Libraries & the Cultural Record*, 44(3), 279-298. Available: <https://www.jstor.org/stable/25549555>
- MacDonald, S. (2024). Intellectual freedom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 reconciliation.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56(3), 712-727.

<https://doi.org/10.1177/09610006231160795>

- Mill, J. S. (1989). *On Liberty: With The Subjection of Women and Chapters on Socialism*(S. Collini,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859).
- Milton, J. (1959). *Areopagitica*. In D. M. Wolfe (Gen. E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44).
- Oltmann, S. M. (2016). "For all the people": Public library directors interpret intellectual freedom. *Library Quarterly*, 86(3), 290-312. <https://doi.org/10.1086/686675>
- Song, H. K. (2025). Trends in library intellectual freedom: Analysis of studies since the 2000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https://doi.org/10.1177/09610006251369128>

<p>•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p>
--

- Ahn, Myeong-Suk & Oh, Ik-Geun (2015). Analysis of attitudes on using five-star hotel packages applying network text analysis method: Using portal sit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30(5), 163-181.
- Bae, Kyungjae (2022). A field perception and agenda of intellectual freedom and censorship issues in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2), 277-294. <https://doi.org/10.4275/KSLIS.2022.56.2.277>
- Chang, Deok-Hyun (2011). Intellectual freedom issues in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165-182. <https://doi.org/10.16981/kliss.42.1.201103.165>
- Choi, Young-Chul & Park, Sujeong (2011). Analyzing trends in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Application of the network text analysis method.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1), 123-139.
- Han, Eun-Hyeong (2017). A Comparative Study of Research Trend in the Field of Practical Knowledg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Jeong, Eun-Ju (2014).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in Academic Libraries: Focusing on the Libraries of Theological Universities in Korea.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 Jeong, Hyun-Tae (2000a). A study on the intellectual freedom in Kore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1), 243-264.

- Jeong, Hyun-Tae (2000b). A Study on the Intellectual Freedom in Korean Public Libraries.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Jo, Nam-Ok & Jo, Gyu-Rak (2017). A study on research trend and knowledge structure 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through keyword network Text Analysi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8(2), 1-19. <https://doi.org/10.15703/kjc.18.2.201704.1>
- Kim, Seon-Ho (2016). Progressive librarian 'Zoia M. Horn' and her library freedom ideolog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43-68. <https://doi.org/10.16981/kliss.47.4.201612.43>
- Kim, Sin-Young (2024). Aspects of intellectual freedom restrictions in libraries and countermeasur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2), 189-217. <https://doi.org/10.16981/kliss.55.2.202406.189>
- Kim, Sun-Hee & Yoon, Jae-Hee (2021). Research trends of network analysi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Focusing on academic journal papers from 2016 to 2020.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6(6), 159-181. <https://doi.org/10.20437/KOAECE26-6-07>
- Kim, Yong-Hak (2011). *Social Network Analysis* (3rd ed.). Seoul: Parkyoungsa.
- Kim, Young-Hwa & Kim, Hana (2023). A systemic review on career development research focusing on social class: Keyword network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9(6), 75-96. <https://doi.org/10.24159/joec.2023.29.6.75>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9).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Revised February 28, 2019). Available: [https://www.kla.kr/download/도서관인%20윤리선언%20포스터\(2019.2.28.\)국문%20영문.pdf](https://www.kla.kr/download/도서관인%20윤리선언%20포스터(2019.2.28.)국문%20영문.pdf)
- Korean Library Association, Library Intellectual Freedom Committee (2024, August 1). Library Intellectual Freedom Guidelin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Available: <https://www.kla.kr/api/boards/4/posts/25236/files/4266/download>
- Lee, Jae-Yoon (2012). SEMI.exe [Computer software].
- Lee, Jae-Yoon (2013a). COOC.exe (version 0.4) [Computer software].
- Lee, Jae-Yoon (2013b). Wnet.exe (version 0.4.1) [Computer software].
- Lee, Jae-Yoon (2013c). A comparison study on the weighted network centrality measures of tnet and WN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241-264. <https://doi.org/10.3743/KOSIM.2013.30.4.241>
- Lee, Myeong-Hee (2001). A preliminary study on intellectual freedom in America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2(2), 141-162.

- Lee, Myeong-Hee (2004). Libraries' efforts to preserve intellectual freedom and banned book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5(1), 193-216.
- Lee, Soo-Sang (2012). *Network Analysis Methodology*. Seoul: Nonhyeong.
- Lee, Soo-Sang (2014). A content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using the language network analysis metho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4), 49-68.
<https://doi.org/10.3743/KOSIM.2014.31.4.049>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025, September 8). Restrictions on reading and borrowing sex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books violate children's right to know [Press releas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vailable: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1474&menuLevel=3&menuNo=91>
- National Library Committee (2025). Trends and solutions for intellectual freedom infringements in libraries. Available:
<https://www.clip.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8&boardNo=1868>
- Song, Hyunkyung (2025). A case study of library intellectual freedom on newspaper big data since the 200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9(1), 547-573. <https://doi.org/10.4275/KSLIS.2025.59.1.547>